

詠物詩의 流變**

林 承 坏*

◁ 目 次 ▷

- | | |
|-------------|------------|
| I. 緒言 | 2. 齊梁時期 |
| II. 詠物詩의 發展 | 3. 唐代的 詠物詩 |
| 1. 建安時期 | III. 結語 |
-

I. 緒言

중국고전문학에서 영물작품의 연원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것은 「感物言志」하는 中國詩歌의 전통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느 객관적인 대상물을 읊은 詠物詩作은 《詩經》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淸康熙帝《佩文齋詠物詩選》서문에 蟲魚草木의 미물들이 天地萬物의 이치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영물작품의 기원은 《詩經》이라고 추론했는데, 《詩經》에서는 대체로 한 편 중에서 一·二句에 事物을 음영했고, 또 작품 전체로 보면 物象이 主가 아니고 情志가 主體가 되어, 비록 蟲魚草木의 명칭이 《詩經》에 등장한다 하여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물시로 보기 어렵다. 단지 일부분이지만 이러한 사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 자신의 情志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후세 詠物詩歌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영물시의 범위에 대해 《佩文齋詠物詩選》은 영물시를 확대 해석해 外界의 物을 吟詠한 것은 모두 영물시로 간주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詩를 영물작품으로 볼 수 있어 영물시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는데, 통념적인 영물시의 대상물은 花卉草木과 蟲魚鳥獸가 중심이 되고, 그 외에 月星雪霜과 山川岩泉 등 자연계의 특정물과 器物 등이 추가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 원광대학교 중문과 교수

** 이 논문은 2000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이러한 詠物詩는 후세에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게 된다. 魏晉南北朝 시기에 端緒를 보이기 시작하여 唐代에 이르러 크게 유행하였고, 兩宋을 거쳐 後世까지 詩人墨客들의 화제가 되었는데, 본고에서는 詠物詞가 성행한 宋代 이전까지의 영물시 발전과정에 대해 주요 작가의 작품을 통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II. 詠物詩의 發展

1. 建安時期

이 시기의 영물작품은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지만 後代 詠物詩歌의 두가지 중요한 특질인 比興과 隱喻를 통해 개인의 情緒와 感懷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寄託¹⁾과 知人끼리 唱和酬贈하는 社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寄託의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작품으로 曹植의 〈吁嗟篇〉과 〈野田黃雀篇〉이 있는데, 〈吁嗟篇〉을 예로 들면:

吁嗟此轉蓬， 居世何獨然？ 長去本根逝， 宿夜無休閒。 東西經七陌， 南北越九阡。 卒遇回風起， 吹我入雲間。 自謂終天路， 忽然終沈淵。 驚飈接我出， 故歸彼中田。 當南而更北，	아아! 굴러 다니는 이 쑥처럼 세상살이 어찌 이다지 외로운가? 오랜동안 뿌리에서 떨어져 있어 밤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헤메이네. 동서로 수많은 길 지나고 남북으로 난 무수한 길들 넘나들었네. 갑자기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이 나를 구름 사이로 불어버렸네. 속으로 느끼기에 하늘 끝인줄 알았더니 홀연히 떨어져 심연에 잠기네. 사나운 바람이 나를 끌어내더니 저 들 가운데로 돌려 보냈네. 남쪽으로 가야될 땐 다시 북으로
--	--

1) 吳梅 《詞學通論》: 「영물작품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기탁에 있다. 소위 기탁이란 것은 借物言志하여 복잡하게 얽힌 층의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詠物之作, 最要在寄託, 所謂寄託者, 蓋借物言志, 以忠愛網繆之旨.)」, 常務印書館, 臺灣, 1933년, 5쪽.

沈祥龍 《論詞隨筆》: 「영물작품은 一物을 빌려 性情을 표현하는 것인데, 무릇 신세의 감회와 君國에 대한 근심을 은밀히 작품 속에 담아 기탁이 심원하여 경박한 영물이 아니다. (詠物之作, 在借物以寓性情, 凡身世之感, 君國之憂, 隱然蘊於其內, 斯寄託遠邁, 非沾沾焉詠一物矣.)」, 《詞話叢編》, 4070쪽.

謂東而反西.	동으로 가다가는 서쪽으로 되돌아 오네.
宕宕何當依?	이리저리 헤메는데 무엇에 의지해야 되는지?
忽亡而復存.	갑자기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네.
飄飄周八澤.	이리저리 날리면서 수 많은 호수가 땀들고
連翩歷五山.	펼 펼 날리면서 수 많은 산허리 둘러왔네.
流轉無恒處.	떠돌아 다니느라 일정한 거처 없으니
誰知吾苦艱?	누가 알아주랴 이 고생을?
願爲中林草.	바라건데 숲 속의 풀이라도 되어
秋隨夜火燔.	가을 산불에 타버렸으면.
糜滅豈不痛?	불에 타 사라져 버리는게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願與根荄連.	바라는건 뿌리 곁에 머물고 싶어서라네.

曹操의 아들 曹植의 작품으로 형 文帝(曹丕)와 그의 아들 明帝(曹叡)의 계속된 박해로 壯志가 꺾이고 내심의 고통과 慷慨를 표현한 대표적인 詩作 중의 하나인데, 뿌리에서 멀리 떨어져(長去本根逝) 굴러 다니는 蓂(轉蓬)을 빌어 조정의 박해를 받아 京都를 떠나 지방을 전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비통한 심정을 기탁했다.

「本根」은 京都를 비유하며, 「東西經七陌」句이하 四句는 누차 지방을 전전하는 자신의 처지를 은유했는데, 曹丕는 자신의 동생 曹植이 한 곳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세를 얻을까 두려워 封地를 여러차례 바꿨다 한다. 「自謂終天路」이하 四句는 京都로 돌아 가고픈 자신의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했으며, 「當南而更北」이하 八句는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으면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의지할 곳 없이 좌절하며 유랑하는 자신의 애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마지막 四句에서 京都로 돌아가고 싶은 애절한 심정을 드러내며 극도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겨나는 절망의 심정을 표출했다.

작품 전체가 蓂을 영물하면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기탁했는데, 작품 중간에 두 번의 “我”字를 사용하고, 교묘한 擬人化의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蓂을 묘사한 듯 하면서 자신을 묘사한 기탁의 특색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唱和酬贈하는 社交의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曹植·劉楨·應瑒 등이 쓴 동일 제목의 <鬪鷄詩>가 있는데, 이 시기 사교의 성질을 가진 영물시는 내용면에 있어 심원한 뜻을 지니기 보다는 단지 읊고자 하는 사물을 단순히 묘사하는 작품이 많다. 曹植·劉楨·應瑒 3인이 투계 장면을 묘사한 <鬪鷄詩>를 보면 이러한 특질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曹植의 <鬪鷄詩>를 예로들면:

遊目極妙伎.

둘러보니 절묘한 기예도 다하고,

清聽厭官商。
 主人寂無爲。
 衆賓進樂方。
 長筵坐戲客。
 鬪鷄觀間房。
 群雄正翕赫。
 雙翅自飛揚。
 揮羽激清風。
 俾目發朱光。
 鸞落輕毛散。
 嚴距往往傷。
 長鳴入青雲。
 扇翼獨翱翔。
 願蒙狸膏助。
 常得擅此場。

들려오는 고아한 음악소리도 싫중나네.
 주인은 무묘한 듯 조용한데,
 손님들은 (투계의) 즐거움을 권해오네.
 구경꾼들 긴 댓자리 깔고 앉아.
 문간방에서 투계를 구경하네.
 삼닭 무리들 투지를 불사르며,
 꼬리 깃털 세우고 이리저리 날아보네.
 날개 짓에 바람이 일고,
 사나운 눈에선 붉은 빛 발하네.
 부리 찍히는 곳엔 깃털 흩어져 날고,
 날카로운 발톱 스치는 곳마다 상처가 나네.
 하늘보며 길게 울어제끼고,
 양 날개 퍼드덕거리며 의기양양 높이 나네.
 바라건데 (닭 머리에) 너구리 기름 칠하고,
 항상 투계장에서 독무대를 이뤘으면.

시의 첫 六句에서 당시 귀족들의 취미생활에 대해 언급하며 음악이나 기예 등에 대해 염증을 느껴 새로운 오락을 찾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長筵坐戲客」이하 二句에서 당시 새로운 오락 방법인 투계 유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성행하는 것을 묘사했다. 「群雄正翕赫」이하 六句에서는 투계 장면을, 「長鳴入青雲」이하 二句에서는 승리한 닭의 득의만만한 자태를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古代에 士大夫 文人들이 종종 일단의 동일 제목으로 次韻·和韻하며 각자 吟詠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문학행위가 있었는데, 曹植·劉楨·應瑒 3인이 同題로 투계 장면을 생동감있게 묘사한 〈鬪鷄詩〉를 보면 이러한 唱和의 특질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 齊梁時期

이 시기의 영물작품은 한편으로는 建安時期의 사교적 성질을 가진 영물시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지만 遊戲의 성질이 더욱 가미되고 文風의 변화로 인해 風格 또한 더욱 섬세하고 화려해졌다. 魏晉에서 南北朝에 이르는 동안 중국문학은 唯美主義 文風이 시작된 시기인데다 南朝 宮廷의 음란하고 퇴폐적인 풍기로 인해 이 시기의 詩作도 문장의 辭藻를 극단적으로 추구한 더욱 아름답고 멋진 글을 쓰기에 힘을 썼으며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이 시기 영물시의 주제도 미세하고 화려해졌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南齊 謝朓의 〈詠薔薇〉·〈詠竹詩〉

〉·〈詠琴〉, 梁武帝의 〈詠燭〉·〈詠筆〉·〈詠笛〉, 梁簡帝的 〈詠風〉·〈詠初桃詩〉·〈詠鏡〉·〈詠螢〉·〈詠芙蓉〉 등이 있다. 몇 수를 예로 들어보면:

〈詠薔薇〉

低枝詎勝葉,
輕香幸自通。
發萼初攢紫,
余采尚霏紅。
新花對白日,
故藥遂風行。
參差不俱躍,
誰肯盼薇叢。

낮게 처진 가지 어찌 잎보다 나으련만,
다행히도 가벼운 향기 스스로 사방에 뿜어내네.
막 핀 꽃 봉오리 자색이더니,
내가 꺾은 꽃송이 아직도 선홍색이네.
새 꽃송이 햇빛 받으며 활짝 피어나고,
시든 꽃은 바람에 흩날리네.
(새 꽃 시든 꽃) 들쭉날쭉 모두 다 빛나지 않아,
그 누가 장미 꽃송이 감상하려 할까?

南齊의 대표적 시인인 謝朓의 작품인데 그는 귀족 집안 출신으로 南朝 宋代 謝靈運과 성장환경이나 집안이 흡사하고 사상이나 문학도 많이 닮아 小謝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사령운의 산수시를 계승 발전시켜 산수의 경치를 노래한 작품이 많지만 다수의 섬세하고 화려한 영물시도 창작했는데, 이 작품도 장미를 제재로 노래하면서 장미의 形態·香氣·色彩 등 자연적 속성과 특징을 청신한 필치로 묘사했다.

첫 二句에서는 장미의 자연적 형태를 묘사하면서 비록 볼품 없이 낮게 처진 가지에서 피어난 꽃이지만 향기만은 온 사방에 넘쳐나는 장미꽃 향기의 자연적 속성을 그려냈으며, 三·四句에서는 장미 꽃봉오리 및 활짝 핀 장미꽃의 아름다운 색채를 묘사했다. 장미는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고 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五·六句에서 꽃 피는 시간이 길어 무성함과 시듬이 이어지는 장미의 이러한 특징을 잘 묘사했으며, 마지막 二句에서는 開花 시간이 일정치 않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을 표현했다.

〈詠初桃詩〉

初桃麗新采,
照地吐其芳。
枝間留紫燕,
葉里發輕香。
飛花入露井,
交隼拂華堂。
若映窗前柳,
懸疑紅粉妝。

갓 핀 복숭아꽃 새 색깔 드러내며,
땅에 기대어 향기 뿜어내네.
가지 사이 자색 제비 머무르고,
잎 사이엔 가벼운 향기 피어나네.
꽃잎 우물 속에 날아 떨어지고,
무성함 가지 화려한 집에 스치듯 접해내네.
네(初桃)가 창 앞 버드나무 비추니,
연지분 화장한 소녀 같구나.

梁簡帝 蕭綱의 作. 蕭綱은 梁武帝 蕭衍의 셋째 아들로 그의 형 昭明太子와 동생인 元帝 蕭繹등과 南朝 梁代의 문단을 주도했는데 소명대자를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염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세밀한 묘사와 화사한 언어로 표현하는 작품을 창작하기에 힘써 宮體詩의 성행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八句로 이루어진 詩 全篇에 초 봄에 갓 핀 桃花를 묘사하면서, 청신하고 아름다운 풍채로 대지에 기대어 무성한 가지 사이로 꽃향기 뿜어내는 활짝 핀 복숭아꽃을 아름답고 화려한 필치로 표현했다.

〈詠螢〉

本將秋草并,
今與夕風輕.
騰空類星隕,
拂樹若花生.
屏疑神火照,
簾似夜珠明.
逢君拾光彩,
不吝此身輕.

본래는 가을 풀에 붙어 있더니,
지금은 저녁 바람따라 경쾌하게 나네.
공중으로 날아오르다 떨어지는 별도 같고,
나무를 스쳐가는 땅콩도 같고,
병풍에 도깨비불 비추는 것도 같고,
珠簾위에 夜明珠 환하게 빛나는 것도 같네.
그대(螢)를 만나 광채를 얻으니,
이 몸도 경쾌하여 아쉬울 것이 없네.

역시 梁簡帝의 작품으로 첫 二句에서는 가을 풀에 붙어 지내다 밤이 되면 밤 바람 따라 공중을 날라 다니는 반딧불의 일반적 형상을 묘사했다. 「騰空類星隕」이하 四句에서는 반딧불의 광채에 착안해서 流星과 땅콩, 도깨비불, 夜明珠에 비유하여 빛을 발하는 반딧불의 형상을 그려냈으며, 마지막 二句에서는 詠物詞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묘사법인 의인법을 사용하여 작자의 寓意를 표현했는데,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상력으로 각자 흥미있는 연상을 해볼 수 있게 해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齊·梁時代에는 당시 유행의 풍조의 성행과 帝王들의 선호로 인해 文臣들도 앞다투어 화려한 詠物詩篇을 창작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初唐의 宮廷詩에 까지 영향을 미쳐 이어진다.

3. 唐代의 詠物詩

初唐의 영물시는 齊·梁의 여풍을 계승한 宮廷文學의 성행으로 형식미와 성물을 중시하는 唯美主義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유행의 풍조를 반대하고 思想과 內容을 중시하는 陳子昂의 출현으로 비로소 풍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는 〈修竹篇序〉에서 詩歌의 혁신을 주장하고 漢·魏의 風骨과 興寄를 내세우며 復古를 제창했다. 진자앙의 〈與東方左史虯修竹篇序〉를 보면:

문장의 도가 폐하여진 지 오백년이 되었다. 漢·魏代의 풍골이 짝 · 宋代에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문헌에서는 찾아 볼 수 있다. 내가 한가할 때에 齊·梁代의 시를 본적이 있는데, 이름다운 문체에만 열중하고, 상징적 수법으로 뜻을 표현하는 興寄는 끊어졌으니, 언제나 이 때문에 탄식하며, 옛 사람들을 속으로 사모하였고, 늘 걱정은 퇴폐적인 기풍이 오래 지속되고 風雅는 창작되지 않을까이며 이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다.(文章道弊, 五百年矣. 漢魏風骨, 晉宋莫傳, 然而文獻有可徵者, 僕嘗暇時觀齊梁間詩, 彩麗競繁, 而興寄都絕, 每以永嘆, 竊思古人, 常恐逸遠頹靡, 風雅不作, 以耿耿也.)²⁾

진자앙의 이 문장은 시가 혁신의 선언서와 같은 바 그는 六朝의 형식주의적인 문풍을 벗어나 고도의 발전과 성황을 이룬 盛唐의 시단을 준비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작가가라 할 수 있다. 이제 진자앙의 〈感遇〉三十八首 중 第二首를 예로 들면:

〈感遇〉(其二)

蘭若³⁾生春夏,
芊蔚何青青.
幽獨空林色,
朱萼冒紫莖.
遲遲白日晚,
嫋嫋秋風生.
歲華盡搖落,
芳意竟何成.

봄 여름에 자라나는 난화,
어찌 그리 푸르르고 무성한가!
고요하고 운치있어 숲 속의 다른 절색들 빛이 아래네.
자색 줄기 사이로 머리 내민 붉은 꽃 (때문에).
길고 길던 해 점점 짧아지며 저물어 가고,
산들산들 가을 바람 불어오네.
좋은 시절 다하고 시들어 떨어지니,
그 꽃은 결국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 작품은 題序에서 吟詠의 대상물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난화를 읊으면서 「托物寓意」의 수법으로 자신의 감회를 기탁한 영물시이다. 詩의 전반 四句에서는 봄 여름에 걸쳐 피어나는 난화의 수려함에 대한 감탄을, 후반 四句에서는 가을이 되어 시들어 떨어지는 난화에 대한 탄식을 묘사했는데, 단순히 蘭花를 읊은 듯 하지만 사실 시들어 떨어지는 난화에 자신을 비유하여 별로 이룬 것도 없이 쇠락해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진자앙은 대상물을 음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기탁함으

2) 《全唐詩》(二), 卷八十三, 文史哲出版社, 895-896쪽.

3) 蘭若: 蘭草와 杜若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蘭若은 「偏義詞」로 蘭을 가리킴. 《中國歷代詠花詩詞鑑賞辭典》, 503쪽 참조.

로서 자신의 시가혁신에 대한 주장을 몸소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진자양의 이러한 시가 혁신에 대한 이론과 실천은 당시의 시인 張九齡에게 영향을 주었다. 장구령은 비록 재상을 지냈지만 李林甫 등 간신들의 모략에 의해 파직된 뒤로 진자양과 같은 류의 詩作을 지었는데, 진자양의 〈感遇〉詩 38首를 본떠 지은 〈感遇〉詩 12首에서 草木과 禽鳥를 빌어 자신의 감정을 기탁한 작품들을 보면 그가 진자양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 지 알 수 있다. 이제 丹橘을 읊으면서 자신의 감회를 기탁한 장구령의 〈感遇〉十二首 중 第七首를 예로 들어 보면:

〈感遇〉(其七)

江南有丹橘,
經冬猶綠林。
豈伊地氣暖,
自有歲寒心。
可以薦嘉客,
奈何阻重深?
運命唯所遇,
循環不可得。
徒言樹桃李,
此木豈無陰。⁴⁾

강남에 붉은 귤이 있는데,
겨울을 지내면서도 여전히 푸른 숲을 이루네.
실마 그 곳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겠는가,
본래 추위에도 꿋꿋하게 견디는 본성이 있어서라네.
귀한 손님에게 권할만 한데,
어찌하여 첩첩 산 깊은 물은 가로 막는가?
운명이란 단지 조우하는 것일진데,
좋은 날은 만날 수가 없네.
단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복숭아와 오얏만 심는데,
이 나무(丹橘)라고 어찌 시원한 나무 그늘이 없겠는가?

〈感遇〉十二首는 開元 25년(737) 張九齡이 荊州長史로 좌천되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진자양의 〈感遇〉三十八首를 본 떠 지었는데, 이 작품도 앞에 인용한 진자양의 작품 〈感遇〉(其二)처럼 題序에서 吟詠의 대상물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丹橘을 읊으면서 「借物言志」의 수법으로 자신의 감회를 기탁한 영물시이다. 장구령은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文才로 玄宗 때 재상을 지냈으나 간신 李林甫의 모략으로 인해 벼슬길에서 파직되어 초야에서 여생을 보냈는데, 이 작품에서 자신을 丹橘에, 李林甫의 무리를 桃李에 비유하여 懷才不遇의 감개를 은근히 표출했다.

全篇에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굳건한 정절을 지닌 丹橘을 자신에 비유하여, 조정에 들어가 임금에게 헌신하고 싶으나 소인배들에 의하여 저지 당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특히 마지막 二句에서는 重用되고 있는 이임보 무리 즉 桃李만 시원한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초야에 묻혀 지내는 자신 즉 丹橘도 시원한 그늘을

4) 《韓詩外傳》: “봄에 복숭아와 오얏을 심으면,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그늘을 얻고, 가을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조간자가 말했다.(趙簡子曰: 春樹桃李, 夏得陰其下, 秋得食其實.) 《中國歷代咏物詩辭典》, 826쪽 재인용.

만들 수 있다고 묘사하면서 出仕하고 싶은 강한 희망을 은근히 드러냈다.

이러한 「借物言志」의 수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은근히 표출하는 영물시는 唐代의 詩聖으로 일컬어지는 杜甫에 이르러 더욱 더 발전을 하게 된다.

杜甫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믿고 높은 관직에 올라 가슴 속에 품었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해 보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면서 나라의 위기를 목격한 데다 인민들의 처참한 생활을 목격하고, 다른 작가들에 비해 더없이 뜨거운 사상 감정으로 인민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표시하였다.

두보는 가슴 속에 차있는 이러한 사상 감정을 자기가 창작할 수 많은 작품 중에 「感物言志」의 수법을 사용하여 比興과 隱喻의 방식을 통해 표출했는데, 두보의 몇 작품을 예로 들어 이러한 특질을 알아 보면:

〈房兵曹⁵⁾胡馬〉

胡馬大宛⁶⁾名,
 鋒稜瘦骨成。
 竹批雙耳峻,
 風入四蹄輕。
 所向無空闊,
 眞堪托死生。
 驍騰有如此,
 萬里可橫行。

대완국에서 유명한 호마,
 칼끝 처럼 뾰뾰 마른 골격이네.
 가늘게 작은 대나무 처럼 두귀는 뽕쪽하고,
 경쾌하게 달리는 네 발굽사이로 바람이 이네.
 끝도 없이 광활한 곳 향해 달릴 능력도 있어,
 정말로 감히 생사를 맡길만 하네.
 힘차고 날래게 달릴 능력이 이와 같으니,
 만리 밖도 맘대로 횡행하며 공을 세우겠네.

이 작품은 開元 29년(741)경에 지은 것으로 全篇에 胡馬의 골격과 형상이 비범함과 재덕이 출중함을 묘사한 듯 하지만 단순히 말의 외형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말의 형태와 특질을 투시하여 말의 남성적 氣象과 자유분방함 등을 표출하면서 작가의 정서와 감회를 기탁했다. 즉 작가는 영물시를 창작하면서 단순한 영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물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와 감회를 기탁했는데, 곳곳에 말을 묘사한 듯 하면서 사람을 묘사하고 사람을 묘사한 듯 하면서 말을 묘사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結句는 名馬로 큰 공을 세우라고 房兵曹에게 축원하는 듯 하지만 사실 작가 자신의 진취적 영웅기개를 은근히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작품을 예로 들면:

5) 房兵曹: 姓이 방씨인 하급 군관.

6) 大宛: 漢代 西域地方의 나라 이름. 良馬 산지로 유명.

〈孤雁〉

孤雁不飲啄，
飛鳴聲念群。
誰憐一片影，
相失萬重雲。
望盡似猶見，
哀多如更聞。
野鴉無意緒，
鳴噪亦紛紛。

외로운 기러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날개 소리 내며 무리를 찾아 헤메네.
어느 누가 저 한조각 그림자를 가여워 할까?
만점 구름 위에서 무리를 잃은 저 외기러기를.
(기러기 무리가) 마치 희미하게 보이는 양 보고 또 보고,
(무리의 소리가) 마치 다시 들리는 양 울부짖고 있네.
들 까마귀는 남의 기분도 모르고
월새 없이 시끄럽게 울어대네.

晩年에 夔州에서 쓴 작품으로 무리를 잃고 방황하는 외기러기를 묘사하면서 流浪의 고통, 零落의 슬픔 등 자기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기탁하고 있다. 특히 結句에서 월새 없이 시끄럽게 울어대는 들 까마귀의 추태를 묘사하면서 외기러기의 고고한 품격을 대비시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조정에서 설쳐대는 간신들과 다른 작가 자신의 고고한 품격을 은연 중에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작품을 예로 들면:

〈月〉

天上秋期近，
人間月影清。
入河蟾不沒，
搗藥兔長生。
只益丹心苦，
能添白髮明。
干戈知滿地，
休照國西營。

하늘나라 견우 직녀 만났다는 칠석이 가까워지니,
인간세상에서 보는 달 그림자는 더 맑네.
은하 속에 빠져 들어간 두꺼비(달)는 침몰하지도 않고,
약 찧는 토끼(달)는 오래도 사네.
(달빛은) 단지 마음 속 고통만 더하게 하고,
백발만 더 늘어나게 하네.
은 땅이 전쟁 중이니,
제발 장안 서쪽 軍營에는 비추지 마라.

이 작품은 至德 2年(757) 7월에 鳳翔에서 從8品 左拾遺 벼슬을 할 때 지은 것으로, 당시 안사의 난으로 함락된 장안을 수복하기 직전⁷⁾ 나라가 온통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간신들의 부패하기 짝이 없는 암흑같은 정치를 보고 인민들의 불우한 처지를 동정하면서 읊은 詩이다. 題序에 밝힌 바와 같이 달을 읊은 詠物詩이지만 단순한 영물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회를 기탁했다고 볼 수 있다. 全篇에 밝은 달을 바라보면 헤어진 가족 생각, 떠나온 고향생각 등으로 가슴 아파할 사람들을 걱정하는 작가의 심정을 드러냈는데, 특히 結句에서는 당시 장안 서쪽의 扶風에 주둔하며 장안 수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관군이 밝은 달빛을 보면 멀리 두고온 고향생

7) 至德 2年(757) 8월에 장안을 수복함.

각에 傷心할까봐 걱정하는 작가의 마음을 표현했다.

Ⅲ. 結語

이상을 종합해 보면, 詠物作品은 中國詩歌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感物言志」의 기초 위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으며, 영물시는 왕왕 작자의 身世나 環境 등의 영향으로 比興과 隱喻를 통한 개인의 情緒와 感懷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寄託의 성질을 가진 작품과 知人끼리 唱和酬贈하는 社交의 성질을 가진 작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의 성질을 가진 영물시는 내용면에 있어 심원한 뜻을 지니기 보다는 단지 吟詠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단순히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작품은 「借物言志」의 수법을 사용한 기탁의 성질이 있는 작품보다 문학작품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⁸⁾

영물시의 발전 과정을 보면 《佩文齋詠物詩選》서문에서 영물작품의 기원은 《詩經》이라고 추론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물시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일부분이지만 사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 자신의 情志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後代 詠物詩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됐다고는 볼 수 있다.

이러한 영물시는 魏晉南北朝대에 端緒를 보이기 시작하여 唐代에 이르러 크게 유행하였는데, 建安時期的 영물시는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지만 後代 詠物詩의 두가지 중요한 특질인 比興과 隱喻를 통해 개인의 情緒와 感懷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寄託과 知人끼리 唱和酬贈하는 社交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齊梁時期的 영물시는 建安時期的 사교적 성질을 가진 영물시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지만 遊戲의 성질이 더욱 가미되고 文風의 변화로 인해 風格 또한 더욱 섬세하고 화려해졌다. 이러한 현

8) 歷代 詞論家들은 論評을 통하여 詠物詞의 최고 높은 境界는 寄託이라 했다.

清代 沈祥龍 《論詞隨筆》: 「영물 창작이란 사물을 빌어 性情(성품)을 내포시키는 것인데 무릇 신세에 대한 감회나 君主·國家에 대한 근심을 은연중에 그 안에 포함시켜 기탁을 심오하게 하는 것이지 경박하게 어느 사물을 읊는 것이 아니다. (詠物之作, 在借物以寓性情, 凡身世之感·君國之憂, 隱然蘊於其內, 斯寄託遙深, 非沾沾焉詠一物矣.)」 唐圭璋編 《詞話叢編》, 廣文書局, 4070쪽.

吳梅 《詞學通論》: 「영물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탁에 있는데, 소위 기탁이란 것은 사물을 빌어 의지를 말하는 방식으로 忠愛의 감정이 얽힌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詩經》의 比興과 《離騷》의 香草美人이 모두 이에 속한다. (詠物之作, 最要在寄託, 而所謂寄託者, 蓋借物言志, 以抒忠愛綢繆之旨, 三百篇之比興, 《離騷》之香草美人, 皆此意也.)」 吳梅著 《詞學通論》, 商務印書館, 5쪽.

상은 初唐의 宮廷詩에 까지 영향을 미쳐 이어지다 詩歌의 혁신을 주장하는 陳子昂의 출현으로 비로소 풍격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는 唯美主義 풍조를 반대하고 漢魏의 風骨과 興寄를 내세우며 復古를 제창했는데, 이러한 시가 혁신운동은 장구령에 이어 두보에 이르러 더욱 더 발전하게 된다.

杜甫는 가슴 속에 품었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해 보려다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갖은 풍상을 겪으면서 나라의 위기와 인민들의 처참한 생활을 목격하게 되어, 다른 작가들에 비해 더없이 뜨거운 사상 감정으로 인민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표시하였는데, 이런 가슴 속의 감정을 수 많은 작품 중에 「感物言志」의 기법을 통해 표출했고, 이러한 표현 방법은 후세 영물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陶今雁 《中國歷代詠物詩辭典》，江西教育出版社，中國，1992
 孫映達 《中國歷代詠花詩詞鑑賞辭典》，江蘇科學技術出版社，中國，1989
 李文祿·劉維治 《古代詠花詩詞鑑賞辭典》，吉林大學出版社，中國，1990
 陸堅 《中國詠物詩選》，中州古籍出版社，中國，1990
 吳熊和 《唐宋詩詞評析詞典》，浙江人民出版社，中國，1991
 趙福壇 《曹魏父子詩選》，源流出版社，臺灣，1982
 李文初 《漢魏六朝詩歌賞析》，廣東人民出版社，中國，1984
 《先秦漢魏六朝詩鑒賞辭典》，三秦出版社，中國，1990
 陳聖明 《唐人詠花詩研究》，政治大學中文研究所碩士論文，臺灣，1982
 馬寶蓮 《兩宋詠物詞研究》，師範大學國文研究所碩士論文，臺灣，1983
 《全唐詩》，文史哲出版社，臺灣，1978
 唐圭璋 《詞話叢編》，廣文書局，臺灣，1980
 吳梅 《詞學通論》，商務印書館，臺灣，1972
 葉嘉瑩 《唐宋詞名家論集》，國文天地雜誌社，臺灣，1987

【中文題要】

詠物之作，在中國古典文學中，原可說是淵源甚早，此與中國詩歌之重視「感物言志」的傳統，大概有相當密切的關係。

至於詠物之在後世詩歌中的發展，大約可分為以下幾個重要階段。

其一，是建安時代的詠物詩。此一時期的詠物詩雖然並不是很多，但却已顯示了詠物詩的兩種重要特質。第一種特質而言，就是詠物詩的喻託性，此一特質可以舉曹植的〈吁嗟篇〉為代表。此詩借「轉蓬」之為物，來喻寫一種「長去本根逝」的悲哀。第二種特質而言，就是詠物詩的社交性，此一特質可以舉曹植·劉楨·應瑒諸人所寫題目相同的〈鬪鷄詩〉為代表。這一類詩往往在內容方面並無深遠之情意，而只不過是對所詠之物的一種鋪陳描繪。

其二，是齊梁時代的詠物詩。此一時期的詠物詩，一方面雖然也可以說是繼承建安時期之社交性的詠物詩的一個發展，但是在性質上，由於文風之轉變，却更轉入了一種遊戲的性質，風格也更為纖巧浮華。此一時期的詠物詩，謝朓之〈詠薔薇〉·〈詠竹詩〉，梁簡帝之〈詠風〉·〈詠初桃詩〉·〈詠鏡〉·〈詠螢〉等為代表。

其三，是唐代的詠物詩。初唐時期仍未能脫離齊梁時期的唯美主義文風之影響，直到提倡「漢魏風骨」與「興寄」的陳子昂之出現，才風氣為一變，詠物詩進入了重視內容的階段。他在三十八首〈感遇〉詩中，用「借物言志」的手法喻寄了自己的託意，為自己的理論做出成功的實踐。而且陳子昂的理論與實踐，還會影響了當時另一位詩人張九齡。張氏受到陳氏之影響，却創作與陳子昂頗為同調的〈感遇〉詩十二首，在詠物之中寄託了自己的感懷。此種含有深厚的比興託意之作品，到了杜甫手中遂有更大的發展。他是從其早年所寫的〈房兵曹胡馬〉詩中，就已經表現了此種在詠物詩中比興託意的趣向。其後在秦州·夔州所寫的〈歸燕〉·〈苦竹〉·〈孤雁〉·〈月〉等詩，可以說都莫不有極為深遠的寄託之意。杜甫的詠物詩，實在可以說是詠物詩中極高的一種成就。

【주제어】

詠物詩 感物言志 建安時代 齊梁時代 唐代